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강 대 호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기관방문 결과 : IAAC(카탈루냐 고등건축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AC(카탈루냐 고등건축연구소)는 연구 및 교육, 신소재의 생산 및 홍보 등을 주로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임 - 이 연구기관은 건축물과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하고,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3D프린터를 활용한 건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만드는 등 건축과 도시계획, 산업과 신소재 등을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러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또한 IAAC는 바르셀로나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도시에서 자원의 생산능력을 갖춘 도시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Fab City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음.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향후 IAAC와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민간연구기관과 연계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도시문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경 선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기관방문 결과 : 메트로폴리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는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1960년대 제철 및 조선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도시였으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중공업산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도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었으며, 환경오염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 이후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 및 문화,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음 - 이번 기관방문을 실시한 메트로폴리 30은 민간 비영리단체로 빌바오의 도시재생 계획 및 전략수립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무는 리아 2000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빌바오는 지역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장기적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시행해오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 -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미술관 건립 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체험한 지금은 모든 시민이 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p>○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의 설득과 이해, 참여가 최우선이었고, 이를 근간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고 병 국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바르셀로나 AMB 및 현장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셀로나 AMB기관방문을 마친 후 도시재생사례 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음. - 처음으로 방문한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Cornella de Llobregat)지역의 Canal De La Infanta는 19세기 초에 건설된 운하로 바르셀로나의 농업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이후 산업활동과 도시성장의 근간이 되어왔음. - 20세기에 이르러 낙후·슬럼화 된 공장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운하를 지하로 매립(약 1.7km)하고 도로 및 방치된 건축물들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공원과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코르네야 데 요브레가트(Cornella de Llobregat)의 공장 이적지 및 미활용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방식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후 슈퍼블럭으로 설계한 공공주택 공급현장을 방문했는데, 건축물 가운데에 중정을 둔 것과 같은 “口”자 모양의 건축물로, 면적 및 용적률, 공급세대수 보다도 주민간의 소통과 독창적인 건축설계에 중점을 두고 건축한 공공주택이었음.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셀로나 시는 집값이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변시세 대비 반값으로 분양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며, 향후 바르셀로나 시와 같은 자가마련 지원정책의 도입여부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김 재 형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바르셀로나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시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p> <p>○ 기관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셀로나시에 위치한 포플레노우는 18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방직공장이 밀집해있던 지역이었으나, 이후 1980년대까지 타 지역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었음. - 1990년대에 들어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며 버려지고 방치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22@ Barcelona 사업이 추진되었음. - 포블레노우 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담당하고, 민간은 산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 등 개별 건축물의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재생사업이 진행되었음. - 관(官) 주도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럭은 만사나(블럭) 9개를 묶은 단위로, 가로-세로가 각각 400m 규모이며, 슈퍼블럭 안쪽 차로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구획된 것이 특징이고, 주민 소유 자동차나 응급차 등만 통행이 가능함.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도심 내 차량 운행을 억제하여 환경오염과 공공공간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블록단위로 조성된 계획도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서울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도심 내 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 공공공간 확보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설정 등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김 중 무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기관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진행한 사업이었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반대가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주민들도 빌바오의 아반도이바라 지역을 재생한 후부터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장기간 추진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공공과 민간 모두가 공감하고 메트로폴리 30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해왔기 때문임 - 한편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민관합동 연구소인 메트로폴리 30에서 계획과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사업시행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설립한 리아 2000에서 담당하고 있음 - 메트로폴리 30은 지역 대학, 금융, 철도, 전기, 시청 등 모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현재 140개 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빌바오 시청 역시 회비를 내는 140개 회원 중 하나일 뿐이고, 철저히 관련된 연구주체에 해당 회원 실무진만 참여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빌바오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수가 없는 구조임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사업 또는 개발사업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빌바오의 도시재생사례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노 식 래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현장방문 결과 : 리스본 엑스포지구 및 벨렘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 엑스포지구는 1998년 국제박람회를 개최한 곳으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단지임. - 1998년 10개년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빈민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오리엔트역과 연계하여 고밀도 주거단지 및 바스코 다 가마 쇼핑센터, 해양관 등과 함께 리스본의 신도심으로 개발하였음. - 개발계획 수립 시 오리엔트 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승센터 및 쇼핑몰, 아파트, 오피스 등을 단지형으로 계획하고 개발한 점이 특징으로, 리스본의 알파마 지구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포인트이자, 포르투갈의 도시재생 사례지역임. - 한편 리스본의 벨렘지구의 경우 과거 섬유 및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해있었으나 산업들이 쇠퇴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세계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중심지역으로 조성된 지역임.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본 엑스포지구와 벨렘지구의 사례와 같이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사례는 역사 문화도시인 서울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역사자원을 관광산업화하여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박 상 구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기관방문 결과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CO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 건축가협회(COAM)는 건축관련 직능단체로 건축가들의 교육과 사회적 이익, 건축물의 문화 및 환경가치를 보호하는 법정단체이며, 기관운영을 위해 마드리드 지역사회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고 있음 - 또한 건축가들의 기술적 능력 및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건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 - 기관방문시 면담한 벨렌 에르미다 로드리게스 협회장에 따르면, COAM은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올해로 16번째 진행되는 건축주간이라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마드리드의 도시계획에 대한 토론과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등에 대한 토론, 다양한 컨퍼런스 및 전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역시 건축문화제와 도시건축비엔날레, 한강건축상상전 등 여러 건축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가나 기관이 참여하고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COAM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의견을 건축가들이 스스로 수렴하고, 건축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참고사례로 볼 수가 있음. - 한편 COAM은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COAM 건물자체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개방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건축 직능단체가 시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신 정 호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현장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례는 마드리드 리오와 카스카라 보행교, 마타데로(Matadero) 도시재생지구를 꼽을 수 있음 - 마드리드는 과거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회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였으며,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공간의 강변을 따라 6개 지역에 걸친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카스카라 보행교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및 산책길, 문화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음 - 마타데로(Matadero) 도시재생지구는 1925년부터 1996년까지 도축장으로 운영되어 오다 방치되어 왔고, 마드리드 시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온 혐오공간을 역사적 장소로 보존하면서 전시, 공연, 창작공간, 카페,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등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음. <p>○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의 이 두 가지 도시재생사례의 공통점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인데,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11,930㎡의 수변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마타데로(Matadero) 도시재생지구의 경우 8개의 건물과 광장으로 구성되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로 볼 수가 있겠음 - 따라서 서울시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공공간 및 도시공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상 훈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빌바오의 아즈쿠나센터 재생사례와 시사점>		
○ 현장방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만든 아즈쿠나센터는 건축물의 외형은 과거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는 현대적이고 독특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음. - 이 건축물 내부에는 3개의 새로운 건축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동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세미나 공간,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특히 건물 로비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반투명한 수영장 바닥이 보여, 천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의 외형이 비춰지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음 - 건축물 내부 공간 중 특히 도서관으로 조성된 공간이 인상 깊었는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실과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과 게임할 수 있는 공간, 공부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등 누구나 편히 공부와 토론을 하고, 놀다가 집에 갈 수 있는, 내일 또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만드는 재미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음 - 책장 및 책상 하나하나, 도서관 전체의 설계와 그로 인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었음 		
○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서울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민 도서관 등을 조성할 경우, 빌바오의 아즈쿠나센터 도서관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자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정 재 응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빌바오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시사점>		
○ 현장방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은 “구겐하임 효과”라고 부를 정도로 침체된 산업도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97년 개관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 후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하였으며, 빌바오를 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프로젝트이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 시사점 및 서울시 적용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바오의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접근하여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본받을만한 사례라고 생각됨 -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해온 사례라는 점은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메트로폴리 30과 같은 민관협력 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는 점 역시 서울시가 벤치마킹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마드리드), 포르투갈 (리스본)
활동 목적	도시재생 사례조사 및 도시공간·시설의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활동 기간	2019.9.17. ~ 9.25

활동자	성 명	이 석 주 (서명)
	소 속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 토 의 견		
<p>○ 리스본 엑스포지구 현장방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가 추진중인 곤돌라형 신이동 교통수단 검토 방안에 대하여 착안점을 갖고자 리스본 엑스포지구 수변 텔레케빈을 시찰하였음 <p>○ 왜 엑스포지구에 텔레케빈을 설치했을까? 자문해볼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엑스포지구의 결절역(오리엔트 중앙역과 연계되는 북역 Passeio das Tagides과 남역 Passeio de Neptuno)간 연결함으로써 보행 편의 지원 수단으로 기능. - 둘째, 수변에 조성된 엑스포지구 중 거점 시설(바스코다가마 광장, 컨벤션센터, 경기장, 쇼핑센터와 해양수족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겠음 <p>○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케빈이 없었다면, 엑스포지구 방문하는 이용자가 거점 시설을 편리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 - 수변을 따라 형성된 남북 방면 거리가 1.5km 이상인 지구 규모를 감안할 때 거점 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엑스포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교통수단 탑승 자체만으로도 관광 효과도 부수되는 효과임. <p>○ 서울시 적용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스포지구의 텔레케빈은 대규모 개발사업시 복합하여 개발한 반면, 서울시는 신이동 교통수단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거점시설 간 연계 외에 교통 소외 지역 간 교통편의 요소를 보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